



■ 第1回 冊의 文化 세미나 主題發表

書店의 文化空間化

李 重 漢
서울신문논설위원

①

어느새가 우리는 70年代 文化의 評價에 대해서 상당한 合意를 보고 있다. 그 合意의 대표적인 것이 文化 欲求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70年代에 成就한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오히려 당연한 증상이라는 論理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合意는 文化의 質에 있어서는 아직도 취약점이 많은 것이지만, 그 文化의 量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쩍해 해도 될만큼 증가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이다. 더불어 우선 量의 이라도 발전을 해야 質의 向上에 기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樂觀論도 대두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合意를 한다면 이는 너무나 피상적인 관찰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70年代에서 우리의 文化는 더 倭少化되고, 荒廢化됐다는 觀點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文化 欲求의 증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文化에 대한 欲求냐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한 아직도 단 한篇의 文化科學의 論據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니 현재 示顯돼 있는 文化 症狀으로 우리의 文化 欲求를 대별해 볼 수 밖엔 없게 된다. 이렇다고 했을 때 오늘의 우리의 文化 症狀은 既設 文化 그 자체의 上昇의인 효력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하게 그 반대 일 뿐이다.

최근 몇년간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 온대로 이 文化는 지금 商業化된 文化이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商業化된 大衆의 文化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商業化된 大衆의 文化로서도 또 그 나름대로은 전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뉴스위크>誌 최근호가 美國의 70년대 文化를 大賣出大衆化文化라고 꼬집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文化 現象과도 우리의 文化 現象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 大賣出大衆化 文化 이외에도 高級文化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또 個別 文化마다의

適한 價値는 변함없이 있는 것이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에게만 단지 商業化文化 밖엔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결국 70年代 文化 欲求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이는 곧 참다운 의미에서의 文化 欲求였다고는 할 수가 없게 된다.

더 선명하게 例를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國稅廳에서 稅金을 좀 받아야겠다고까지 나섰었던 美術品들의 경우, 美術 수요가 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술품 수요가들이 과연 진정한 文化的 欲求에 의해서 그 미술품들을 소유했었느냐에는 反問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誘示的 欲求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美術品들도, 어느 누가 가진 비슷비슷한 것들로 그것도 좀 더 大型인 것들로 그려져 왔다. 그 작품 자체도 예술적 품위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진실한 미술품 요구자들에게는 이제는 도저히 미술품들을 수용할 능력까지 잃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非文化的 欲求에 의해서 정상적인 文化 欲求가 오히려 위축되게 된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音樂會나 또는 기타 舞臺公演物의 기준이라는 것도 해외에서 수입돼온 1좌석당 2만원짜리 좌석이 아니면, 文化 受容者로서의 느낌을 가지기에 거북하게 되어 버렸다. 어디까지나 誘示 欲求만이 팽배했던 셈이다.

다음으로 量의 發展이라는 것에 대한 樂觀的 견해의 오류도 문제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受容者의 量의 增大에 관한 한 筆者도 同意를 할 수는 있다. 우선 受容者들이 어떠한 수준의 文化 受容을 하던 文化的 熏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이熏련의 출발로부터 質의 文化로 이끌어 들어간다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 觀點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70年代에 있어서 분명히 文化 需要者나 文化 受容者가 늘기

는 했지만 그렇다고 文化媒體나 文化傳達 기능이 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映畫館이나 演劇公演場이다. 映畫館에서는 이미 自歎하고 있는 바이지만, 映畫館은 70年代에 倉庫化 되어 있다. 館數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71년 717館에서 78년 488館) 남아 있는 것들마저 내부시설이나 또는 그 기제들에 한번도 손질을 한일이 없는 것이다. 演劇公演場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明洞에 있는 國立劇場이 獎忠洞에 있는 國立劇場으로 바뀐 것은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演劇自體로서는 그곳의 크고 깨끗한 劇場이 과연 연극발전을 가져오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다 밀접하고 접촉적인 연극이 요구되고 있다는 연극상황으로만 보아도 오늘의 연극무대는 小劇場化되어야만 할 요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의 現實은 도시 건축법이나 소방법, 공연법들에 묶여 오히려 小劇場 폐쇄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바로 책의 文化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는 쉽게 책의 量이 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는 없다. 간단히 1969년부터 1978년 세, 도서발행종수가 6.5배로 늘었고, 그 발행부수도 13.9배로 늘었다는 出協의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69년 2,312종의 발행종수가 78년 15,149종으로 늘었다는 것이고, 또한 69년 421만부였던 발행부수가 78년 5,800만부로 늘었다는 數値들이다. 그러나 이 數値의 내용을 들추면 또 다른 의미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부수가 늘(증가) 것은 참고서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학습참고서는 69년 25만4천부에서 78년 3천7백만부로 늘어나 있다.

출판물 내용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독자를 가지고 있는 文學部門만 보더라도 69년의 1백만부에서 78년의 691만부로 겨우 6배의 신장이고, 이것이 교육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아직도 현저한 증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출판물을 또 앞서와 같이 그 전달기능의 측면으로 볼 때, 여타 文化分野와 별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물론 70年代의 후반에 와서 書店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書店數라는 것이 3,400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全國書籍商聯合會가 올해 조사한 「書店의 實態와 現況」을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서울의 경우 166개소가 늘었다는 반가운 수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166개소를 합해서 서울 서점수라는 것도 1천3백개소를 넘지 못한다.

이 1천3백개소마저도 그 내실에 있어서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이 중 70%가 중·고등학교의 교문근처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볼

론 이 70%에 해당하는 9백개가 중고교들을 다 커버해 준다는 것도 아니다. 이나타도 서울의 어떤 중·고교 앞에는 3~4개의 서점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편중된 상태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집단만으로 보아도 문제의 취약성은 克明해진다. 무엇보다 그 많은 국민학교들 앞에는 서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 앞에 있는 것은 만화가게일 뿐이다. 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학교 내의 구내서점이라는 것이 15개소 뿐이고, 그 주변 대학교재 전문서점마저도 20개소 뿐이라는 것이 實相이다. 그 넓은 서울大學校 관악캠퍼스에 이제 겨우 지난 가을 교문 앞 서점이 하나 생겼다는 것만큼 「아이러니」도 없는 것이다.

이렇고 보면 학생 이외의 집단이나 제층을 위한 서점이란 기실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많고 격음을 떠나서 地方書店들의 경우에는 더욱 별도의 문제가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서점의 기능이 지역 관광안내 책자와 주간지 판매대르 더 치중돼 있다. 다시 말해서 참고서 판매기능마저도 이들 서점에서는 축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의 文化에서도 책의 量이 늘었다는 것이 곧 文化의 量的增大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달기능이 없는 한, 책의 量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는 도서관의 상황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70년대에 있어 우리의 도서관은, 실제로 과격하지 않은 표현을 하더라도 수험공부방에 지나지 않게 됐다. 말하자면 圖書館文化의 消滅年代였던 셈이다. 이러한 情況에 대한 認識에 의해서 오늘에 있어 우리의 文化的 課題는, 文化의 質이나 文化의 量에 관한 것이 아니라 文化의 空間이라는 전달기능에 더 거대한 空洞이 있고, 또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文化의 向上은 그 質에 관계 없이 그 量에 있어서도 限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 筆者의 우려인 것이다.

②

文化空間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짚고 넘어갈 측면이 하나 더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산업사회화 과정에 있어 실현되기 마련인 人間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현대의 文化空間은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인간의 재결집상태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命題이다. 그래서 오늘의 文化空間은 그 空間이 작을수록 좋고, 작을 뿐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여러 관심과 취향의 인간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空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 「베니스」에서 있었던 「문화정책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정부간 회의」에서 프랑스 文化省의 연구조사국을 이끌고 있는 「오귀스트 로댕」에게 위

축했던 한 보고서에서도 이 文化空間에 대한 관심이 피력됐었다. 이 때 「오귀스트 로댕」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文化空間은 새 類型의 空間이었다. 즉, 서점과 레코드商을 도서관이 결합해야 하며, 학교강당은 주민의 체육관과 공연장으로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하며 더 희망적으로는 식당까지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만, 도시의 인간들은 다시 모일 수 있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活力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방법론이었다. 이 觀點에 설 때, 우리의 70년대 文化空間의 狀況은 아직 한번도 누구가 제기하거나 관심을 가져본일이 없는 狀況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는 지금, 都市公園의 존재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人道마저도 70년대에 박탈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여타 文化的 空間이란 작은 것을 털고 큰 것만을 몇개 지어놓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몇개의 空間은, 그 어느 곳도 손질을 하지 않은채, 늘어난 文化受容者에 의해 마치 滿員버스만큼이나 불비는 非文化空間化돼 있는 셈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그것이 수험공부방인 도서관마저도 새벽 5시에 가지 않으면 입장권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숨김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情況이고 보면, 우리가 지금 과연 70년대를 文化欲求의 增大年代로만 合意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기실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다.

③

이상의 前提에 의해서 筆者는, 오늘의 狀況에 가장 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현가능한 文化空間으로서의 書店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主張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書店도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업체에 分明하다. 따라서 개인들의 書店을 이 자리에서 주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가 겨냥하는 바는 현재 出版金庫라는 제도아래 文公部の 지원으로 그 첫발을 내 디디고 있는 中央圖書展示館이라는 형태를 모델로 하고자 한다.

이 展示館은 그 첫 開店時에 出版界의 難題였던 유통질서의 확립, 즉 定價販賣制의 公고화와, 책의 展示를 목표로 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도서관매량으로 이미 서점으로서의 독자적인 경영의 개선까지 보았고, 이러한 餘力으로 곧 여의도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계획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空間은 기실 그다지 많은 지원금을 갖지 않고도 전국적인 확산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된

다.

그리고 書店空間이야말로 현행 각종 법률들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유일한 文化空間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단순한 서점운영이라는 觀點을 벗어난다면 이 서점의 空間은 여러 형태의 복합적인 文化空間으로 사용할 수 있어진다. 우선 그것은 精神的 休息空間일 수 있다. 자동판매시설에 의해 커피판매매의 설치와 약간의 의자가 놓일 수 있다면, 이 이상 적절한 休息空間을 더 다른 곳에서 創出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또 모든 文化情報의 촉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空間이다. 각종 文化行事의 티켓을 이곳에서 사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그에 연관된 각종 傳單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더 욕심을 내자면, 좋은 책의 選定기능을 통해 貸本業까지도 할 수가 있다. 책의 貸本業이라는 것을 古物商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요구 또한 오늘의 우리의 도서관 상황이 大衆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다.

그리고 도서회원제의 운영도 가능한 것이다. 主婦나 兒童物들에 있어 도서 회원제를 모집 자유롭게 서점의 책을 보고 갖고 갈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운영은 「크레딧·카드」制로 만든다면, 보다 효율적인 독서 권장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회원이라는 자체만으로도 文化的 質에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現時的 要求에 對應하는 文化空間으로서 도서관시관이 大型書店으로 등장하면, 오늘의 서점들이 갖고 있는 未盡한 문제들도 또한 해결된다.

즉 오늘의 평균 서점면적으로서는 현재 나와 있는 책들마저 충분히 보여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잡지나 大衆小說類 이외에는 서점을 찾는 독자가 요구하는 책마저도 서점이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문제도 얼마쯤 도서관시관이라는 文化空間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기능은 또 지나간 책을, 얼마쯤 구하기 어려운 책들도 公共奉仕 기능으로서 접근하면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연후 개인 서점들은 그들 나름대로 개성을 가진 專門書店이나, 또는 準專門書店으로 바뀌면 된다. 이 또한 書店이라는 것의 존재양식으로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형태인 것이다.

④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書店의 文化空間化는 우리 社會의 입장에 독특한 역할을 또 하나 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文化에 藏書文化가 없다는데서 요구되는 역할이다.

「헤르만·헛세」의 회고를 잠시 생각해 보려 한다. 「헤르만·헛세」는 그가 추천하는 도서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讀書歷을 간명하게 적어 놓았던 일이 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할아버지 書庫에서 책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 책을 만짐으로부터 책의 文化에 젖어 들어 갔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힌트이다. 이러한 藏書로서부터 새로운 독자는 개발되고 또 그 뿐만이 아니라 歷史와 傳統도 傳承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는 이러한 藏書의 연결이 없는 歷史이다.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言語의 장벽으로 단절되어 있다. 현재도 우리는 漢文世代와 日語世代와 한글世代라는 확연히 구분된 言語斷絶 속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혹 어느집에 藏書가 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책을 알아볼 수 있는 손자, 또는 아버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들 世代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 日帝와 解放과 6.25戰亂이라는 歷史的 狀況에 의해 책의 文化는 더욱 殘存의 기회를 잃었던 셈이다.

따라서 새로운 讀書世代,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世代라고 우리가 그동안 지칭해온 世代란 기실 歷史的으로 필연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글世代는 또 기대 이상의 讀書力을 示顯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情況으로 보자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藏書文化가 시작되지 않는 限 여전히 앞으로는 책을 읽는 讀者 世代는 증가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제기한 文化空間으로서의 도서전시관은 바로 이 공동의 藏書 역할을 해야만 할 의무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藏書水準도 오래 보관되어야 할 책들이 골라져야 한다. 이 作業 역시 藏書文化로서의 책무를 맡는 文化空間化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核心은 藏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⑤

마지막으로 文化空間으로서의 書店은 앞서의 요구에 의해 비평기능을 가진 書店으로서 存在해 가야 한다. 도서전시관마다 그 지역별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한곳에서 구성된 것을 전국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또 책의 내용만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오늘날 책의 情況은, 文化財로서의 책과 消費財로서의 책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책은 보고 보관해야 할 책들이 허술하게 제책이 되어나와 있고, 보고 버려도 될 책은 호화양장본으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책의 文化로서의 價値가 있는 책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제책의 형태에서도 선별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까지 포함해야 책의 批評機能은 完成된다.

⑥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文化狀況에 좀더 심각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價値의 기준일 것이고, 그 다음은 그 價値의 전달기능인 것이다. 이 두 核心이 追求되지 않는 한 우리의 文化에 있어 絶對的 貧困은 앞으로는 한참동안 해소될 전망이 없다는 생각이다.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이 本會 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 圖書館職員,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 申請書를 記載 捺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됨.